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15일 (음력 3월 30일) 화요일

## 호남고속철 '지하 공동' 발견 지점 '균열발생'

### 장성군 황룡면 호남고속철 와룡천교 아래 '800m³' 크기 지하 공동 발견

### 시민단체 "고려시멘트 측 고속철 지하 가로지르는 갱도 발파진동 원인"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를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와룡천교 지하에서 '800m³ (폭 35~40m·깊이 19.1m)' 크기의 대규모 지하 공동이 발견된 이후 시민단체가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지하 공동이 발견된 지점은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2008년 6월과 2017년 6월 인근 농경지에서 대형 땅개짐(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던 곳이다.

특히 이곳에 개설된 고속철도는 하루 평균 KTX 66회, SRT 40회가 운행되고 있어 고속철도와 인접한 지하 공동이 무너져 내렸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장성시민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운반용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장성 황룡면 와룡천교 지하에서 지난달 5일 공동이 발견된 데 이어 해당 지점 지상 고속철도 교량에서 균열이 발생해 보수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시멘트 측이 호남고속철도 지하를 가로지르는 '석회석 운반용 차량

작업 통로(갱도) 개설 도중에 발생한 발파 진동이 지하 공동과 교량 균열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지하 통로는 고려시멘트 측이 고속철도 건너편 지하에 매장된 석회석을 채굴해 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개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구간을 따라 지하 150m 지점에 폭 10.7m×높이 7.6m, 길이 400~500m 규모로 개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와룡천교 주변 지반침하 원인을 조사하면서 지하 23~31m에서 길이 35~40m, 800m³ 규모의 지하 공동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규모는 레미콘 133대 분량(1대 6m³)으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그라우팅 공법으로 강제 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공단 측에서는 "지하 공동이 수백년에 걸쳐 진행된 자연 침식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지하공간이 단기간에 확장되거나 붕괴될 우려는 없고 고속철 운영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하 공동이 발생한 곳의 지질은 '실트(silt·모래보다 작고 점토보다 큰 토양입자)·모래·점토·자갈' 등으로 구성된 층층(하천에 의해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 굳지 않은 퇴적층)과 규암 지대로 지하수 유입이 쉽고 비교적 지반이 약한 층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장성 황룡면 와룡천교 지하 공동은 올해 이뤄진 '호남고속철도 안정성 검토 용역' 결과 고려시멘트 측이 건물광산 지하 연결통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간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지하 공동은 호남고속철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실시한 지반조사에 이어 2014년 실시된 '고려시멘트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 발파진동에 의한 호남고속철도(5·2공구) 선로 영향평가'를 위한 정밀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성시민연대는 "호남고속철 노선 확정 전, 두 차례나 이뤄진 정밀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지하 공동이 지하통로 개설을

위해 4년간 발파를 진행한 이후 시점인 지난 4월에 발견됐다는 것은 고려시멘트 측이 건물광산과 고속철 건너편 새로운 광산을 연결하는 지하터널 개설공사 도중에 발생한 발파 충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장성군은 호남고속철 와룡천교 지하에서 발견된 공동 발생 원인이 투명하게 규명될 때까지 고려시멘트 채굴권과 도로 점용권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득 목포대학교 전 환경공학과 교수는 "고속철이 지나는 땅속 지하부에 덩크트럭 2대가 교행 할 정도의 규모가 큰 작업통로를 개설하는데 충격이 미치는 발파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고속철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속철과 같은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구간에서는 발파방식이 아닌 충격 최소화를 위해 쉴드방식(shield method·회전방식 드릴로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장성시민연대 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지하 작업통로 개설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발파 충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봉우 기자



###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측이 자신의 친형과 형수를 향한 욕설 음성파일 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막말 대장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다보니 남 후보의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며 "남 후보가 연일 네거티브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후보 교체 를 요구하면서 막말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의 셋째 형이 시정관여 및 이 관개업을 수차례 시도했고,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셋째 형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스스



## 송영무 "5·18 헬기사격·성폭행 문제 명명백백 밝히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역 역장실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체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5·18 단체장들을 만나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과 성 문제(당시 계엄군의 성폭행)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역 역장실에서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 등 5월 3단체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송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5·18 38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리고, 새롭게 진상 규명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신문에 실린 성 문제(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와 이외의 모든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풀어 내겠다"며 "문재인 정부 내 진실을 완벽히 규명해 매듭을 짓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군은 국민을 보살피고 보듬고 광주 시민을 치유할 것이다. 숨겨거나 감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전의 4·3사건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은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주석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5월 단체가 열려하는 것은 (서 차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특조위 활동에 방해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장관인 이상 그런 열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5월 단체는 송 장관과 면담자리에서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의 인원 부족과 옛 보안대 조사 방안, 성폭행 문제 등을 건의했다.

송 장관은 "진상규명위원회 인원은 50명 이내로 규정 돼 있다. 부족하면 현역이나 군무원을 참여시키겠다"며 "광주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의문점들을 모두 적어 나에게 보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행택 기자

The 19th 2018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8.5.18(금) ~ 5.20(일)

장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 / 홍길동 테마파크

KBS 전국노래자랑 5.19(토) 오후 1시 본선 녹화

# 제19회 전남 장성 홍길동 축제

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 5.18 ~ 27(10일간)

주최 Jangseong |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 후원 전남남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